

# 토곽향 재배된다

**배성한**  
<경북 경산시 공판장장>

한약조제에서 소화제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곽향은 생약재 중에서도 비교적 소비량이 많은 약재에 속한다.

그러나 국내 재배량이 전혀 없어 소비량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다.

최근 토곽향 재배를 시도 농가소득은 물론 국산곽향의 생산기반을 마련해 가는 사람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북 경산시 배성한씨(50). 현재 생약협회 경산시 공판장장을 맡고 있



다. 『향이 강해서 다른 잡벌레가 날아들지 않고 병충해에도 강다. 수입 곽향 시세인 근당 1천 5백원에 비하면 두배가 넘는 가격이다.』

## 전량수입의존 탈피 차원에서 재배시도

## 내년 20여만평으로 확대 재배 계획

다. 배성한씨가 곽향을 처음 재배 시도한 것은 지난 90년 부터.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오다시피한 곽향을 국내에서도 재배해 보자는 생각에서 가지고 있던 종자를 처음엔 한두평 규모의 시험재배에서부터 출발했다.

본격적으로 상품화되어 출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제3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에 출품하면서 부터이다.

배씨는 지난해 1천5백평에서 약 3천근의 토곽향을 수확해 8백만원의 순수소득을 올렸

다. 『향이 강해서 다른 잡벌레가 날아들지 않고 병충해에도 강해 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 배씨는 『일손도 그만큼 절감되고 농가에서 재배하기도 용이한 품목』이라고 소개한다.

3월 중순 파종후 당년 수확이 가능한 곽향은 배수가 잘 되는 곳이면 어디든 재배가 가능하다. 또, 한번 파종으로 그 이듬해 재파종 하지 않고도 2, 3년 까지는 수확이 가능한 것이 장점.

수확한 토곽향은 단순가공작업을 거쳐 대구 영천지역의 도매시장이나 한의원등으로 유통되고 있다.

토곽향 시세는 근당 3천3백

원. 수입 곽향 시세인 근당 1천 5백원에 비하면 두배가 넘는 가격이다. 그런데도 수입산 보다 향이 독특해 '트'자를 선호하는 한의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올해는 주변농가에도 보급 2만8천여평에서 7만5천근의 토곽향을 생산해 냈다.

아직 시장내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없어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20만평으로 확대재배함으로써 평당 수량성을 어느정도 담보해 낼 수 있다면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53-815-0077) <문정희>

# 품종보호작물 농가채종 가능

내년부터는 품종보호 대상작물이라 하더라도 농민이 경영하고 있는 포장면적에 심을수 있는 양만큼은 자가채종이 가능해진다. 또 화훼의 경우에는 농민이 구입한 종자의 양만큼은 자가채종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국내 농작물 생태계를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자수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내 재래종 종자나 국내 기

본종자의 수출 등으로 유전자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종자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입적응성시험이 면제되는 작물의 종자는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및 특용작물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종자업을 등록할때 종자관리시를 반드시 두도록 하되 화훼, 사료작물, 연초, 병, 임목, 해조류 등의 종자업에 대해서는 종자관리시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 동충하초 현미이용 대량 생산

### 현미에 번데기 넣어 배지만들어

현미배지를 이용, 손쉽게 동충하초를 대량재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물학과 성재모교수는 플라스틱통에 현미 80g과 누에번데기 5g을 조각내 만든 배지에 물 1백 20cc를 넣고 살균한뒤 동충하초 포자를 접종한 결과 60일만에 10~15cm의 자실체가 대량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배지를 만들수 있어 누에나 일반 곤충을 이용해 재배할 때보다 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

항암·항세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충하초는 겨울에는 벌레속에 있다가 여름에는 죽은 벌레를 자양분으로 자라는 특이한 버섯, 최근 농촌진흥청

사곤충연구소는 누에에 포자를 인공적으로 접종시키는 재배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성교수는 "현미를 이용하면 현미사이에 틈이 생겨 배지내수분을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 균사가 쉽게 자랄수 있다"며 "농가 실용화를 위해선 살균법을 개선하는등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강원대에 균주은행을 설치, 동충하초표본 1천6백31개와 균주 1백75종을 갖고 있으며 희망농가 등에 동충하초 균주를 분양할 계획이라는 성교수는 동충하초에서 추출한 항생물질(코디세핀)등 여러가지 추출물 이용방안도 연구중이다. 문의 ☎0361-250-6435.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정(안)

### 1. 제정이유

종자산업법(법률 제5024호)이 제정, 공포(96. 12. 6)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이의신청의 심사를 위한 심사관의 자격은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

림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함 (안 제6조)

나.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농민이 경영하고 있는 포장면적에 심을 수 있는 양으로 하되, 화훼의 경우에는 당해 농민이 구입한 종자의 양으로 함 (안 제7조)

다.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심판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심판위원으로 하고, 심판위원의 자격은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자 또는 특허청의 4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중 특허청에서 2년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자로함 (안 제10조)

라. 공무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 절차는 직무육성자가 직무육성품종을 육성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이 품종보호출원을 하도록 함 (안 제14조, 내지 안 제17조)

마. 종자업 등록시 종자관리사 보유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는 적용은 화훼, 사료작물, 연초, 병, 임목, 해조류로 함 (안 제52조)

바. 수입종자 관리를 위하여 수

입종자에 유독한 잡초종자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예상하지 못한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으로 인하여 국내의 기존 농작물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등에는 국내 유통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4조)

사. 수입적응시험이 면제되는 작물의 종자는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및 특용작물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로 함 (안 제55조)

아. 농림부장관이 명한 종자의 비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종자비축 당시의 종자판매가격과 종자비축 후의 종자판매 예

상가격의 차액·저장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종자비축 명령이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6조)

자. 종자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종자위원회의 위원을 3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업무에 경험이 있는자,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농민대표, 종자업자 대표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안 제67조)